

모든 장애물은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

- 바람은 그저 숲에서 불어오지만 어떤 이는 그 바람을 맞고 고요함과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.
- 미인은 그저 뼈와 살이 합쳐진 것이고 상장도 종이나 금속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. 우리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종종 간과한다.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존재의 은밀한 비밀을 똑똑히 들여다볼 수 있다.

모든 장애물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.

마음속이 투명하고 잡티가 없다면

이 세상과 세상 밖 모두를

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.